

##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과 그 특성

박영진

현시기 도매가격을 경제발전속도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도매가격제정사업에서 원가보상, 확대재생산보장의 원칙에서 가격을 정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원가보상의 원칙에서 가격을 정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도매가격제정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매가격을 바로 정하려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물에 대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산물의 도매가격은 원가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전집》 제82권 62페이지)

경제발전속도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도매가격수준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은 해당 생산물에 들어있는 노동지출량의 크기에 기초하여 그 생산물의 가치(가치형태) 즉 도매가격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장, 기업소별로 생산물들의 개별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그것들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원가수준을 타산한 다음 그에 일정한 규모의 순소득을 첨가하여 도매가격수준을 규정한다. 이것은 본질상 개별적단위의 원가수준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평균원가를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물자의 완전지출 또는 제품소비의 효과성에 기초하는 일련의 가격제정방법들과 차이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매가격제정은 반드시 원가에 기초하는 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이 가지는 특성과 관련된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의 중요한 특성은 첫째로, 그것이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대한 계산을 직접 화폐단위로 하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대한 계산은 로동시간단위와 화폐단위로 진행할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보다 가까운 측정단위는 시간단위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적필요로동량은 말그대로 일정한 제품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산로동과 과거로동의 총체로서의 로동지출량이다.

따라서 로동지출의 량적규모에 대한 계산은 시간단위에 의해 보다 정확히 진행될수 있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여 상품화폐관계가 없어진 다음에도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를 비롯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활동은 계속되여야 한다. 이때의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대한 타산에서 보다 공고하고 지속적인 측정단위는 시간단위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로동시간을 단위로 사회적필요로동량을 계산하는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있게 되

는 노동에서의 온갖 차이와 관련된다.

노동에서의 온갖 차이는 곧 노동지출단위량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중노동부문에서 지출하는 한시간의 노동량과 경노동부문에서 지출하는 한시간의 노동량이 같지 않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노동부류와 직종들사이에 크나작으나 노동지출단위량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다 가지고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노동들사이의 지출노동량을 시간단위로 비교하기 힘들며 또한 산 노동지출과 과거노동지출량을 하나의 시간단위로 통약하기도 힘들다는것을 말해준다.

물론 노동시간을 측정단위로 리용하기 위하여 노동지출단위량에서의 차이를 해소시키려는 시도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복잡로동을 단순로동으로 환원시키며 노동강도를 고려해야 하는 이 사업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다.

이것은 현시기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을 시간단위로서가 아니라 화폐단위로 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은 우선 생산에 리용되는 노동력과 생산도구, 원료, 자재의 지출량을 화폐단위로 통약계산하여 모든 생산단위별로 지출수준을 쉽게 규정할수 있게 한다. 또한 그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원가수준과 순소득규모의 타산도 직접 화폐단위로 계산함으로써 도매가격제정전반에서 화폐단위에 의한 계산의 통일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의 중요한 특성은 둘째로, 그것이 지출의 견지에서 가격수준을 규정하게 한다는데 있다.

도매가격제정은 그 출발적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수 있다. 즉 도매가격이 지출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니면 제품소비의 효과성으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된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은 철저히 지출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다.

해당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지출된 비용의 크기는 원가로 반영된다. 원가에 대한 타산은 곧 모든 지출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타산이며 지출수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다. 이 지출수준에 기초하여 도매가격수준이 규정된다.

지출로부터 출발하는 이 방법은 도매가격체계의 구성과 그 객관적기초에 부합된다고 볼수 있다.

도매가격은 기본적으로 원가와 순소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두 요소가운데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원가이다. 생산물의 원가수준은 도매가격수준에 결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도매가격수준규정이 지출수준에 대한 정확한 타산으로부터 출발할것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사회적필요로동의 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개별적생산단위의 지출수준은 물론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지출수준을 전제로 한다. 해당 시기의 실제적인 지출수준을 떠난 사회적필요로동량이란 있을수 없다. 이렇듯 지출수준에 의해 도매가격수준이 결정되는 가격제정방법은 도매가격의 구성과 그 객관적기초에 맞는 방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생산물가격제정에서는 지출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다른 방법도 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최량가격제정방법이다.

최량가격제정방법은 해당한 제품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성의 크기에 기

초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량계획화리론의 원리들에 기초하고있다. 최량가격제정방법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인 지출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소비적측면, 그 효과성의 견지에서 가격수준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최량가격의 기초에는 언제나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이 아니라 최량성규준에 따르는 목적함수값의 증대가 놓여있다. 이것은 이 방법이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제품의 가격을 제정할데 대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최량가격제정방법은 현단계에서는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을 보충하는 보조적방법으로 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의 특성은 셋째로, 그것이 철저히 개별적생산단위들의 지출수준에 대한 타산으로부터 출발한다는데 있다.

도매가격제정은 지출의 견지에서 그 수준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개별적기업체들의 지출수준에 대한 타산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방법론에서는 일련의 차이를 가져온다. 실례로 부문사이균형표를 리용하여 도매가격을 전문적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들수 있다.

도매가격제정에서의 균형표적방법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방법은 지출의 견지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는 최량가격제정방법과 구별되며 개별적생산단위별지출이 아니라 사회적범위에서의 완전지출에 기초한다는 의미에서는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과도 구별된다.

도매가격제정에서의 균형표적방법은 부문사이균형표를 리용하여 생산물의 가치(가치형태)를 직접 계산해보려고 시도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평균적인 생산비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적기업체들의 지출수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부문사이균형표에서는 서로 다른 생산물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생산적연계에 기초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에 지출되는 완전소비에 해당하는 가치(가치형태)를 계산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필요로동지출계산의 방법론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일정하게 차이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부문사이균형표를 리용하여 도매가격을 전면적으로 제정하려는 시도에서는 기초시기의 가격을 전제로 하거나 매 제품의 평균적인 지출수준(평균적인것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현물지출량)이 주어진 조건에서만 가치적계산을 진행할수 있는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균형표적방법이 독자적인 가격제정방법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균형표적인 방법과는 달리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은 개별적기업체들에서의 정확한 지출수준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생산비수준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옳바로 계산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개별적기업체들에서의 지출수준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은 생산물의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가격수준을 규정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도 된다. 개별적기업체들에서의 지출수준, 원가수준은 곧 생산에 대한 보상부분이다. 기업체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할 규모를 정확히 아는 조건에서만 기업체리익과 국가적리익을 옳게 결합하여 정확한 도매가격수준을 규정할수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독립채산제 실시에 자극이 되는 합리적인 도매가격수준도 매 생산단위들의 원가수준을 옳바로 타산

한 기초우에서만 얻을 수 있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사회에서 도매가격제정의 기본방법으로 된다. 현대적인 계산수단들과 경제수학적계산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새로운 가격제정방법들은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의 보충적 수단으로 리용되어야 한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은 이밖에도 계산방식과 관련된 다른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번의 반복계산을 통해서만 정확한 도매가격수준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복계산은 해당 생산물의 생산에 지출되는 다른 생산물들의 가격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가수준과 가격수준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모든 생산적지출비용에 대한 화폐적계산은 언제나 가격수준을 전제로 한다. 즉 가격이 주어진 조건에서만 원가에 대한 화폐적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이 한 생산물의 가격수준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리용되는 다른 생산물의 가격수준을 알고 있어야 하며 결국 모든 생산물의 가격수준을 알아야 모든 생산물들의 원가수준과 가격수준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방법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생산물의 가격수준을 미리 예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생산의 순차적단계에 놓여 있는 생산물들 중에서 보통 첫 단계에 속하는 시초생산물들의 가격수준을 실적원가의 변화동태와 해당 생산물에 대한 정책적요구를 반영하여 미리 예상하게 된다. 예상한 가격에 기초하여 그 다음 생산단계들에서 원가수준과 가격수준을 타산하여나가는 방법으로 전반적공업생산물들의 1차가격수준을 얻게 된다.

1차가격수준에 기초하여 2차가격수준이 타산되게 된다.

이처럼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은 일부 생산물들의 예상한 가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번의 반복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반복계산의 회수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원가계산에서 가격지수를 바로 리용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에서 가격지수를 리용한다는 것은 호상의존관계에 놓여 있는 도매가격들사이에서 한 가격이 다른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의 크기에 따라 매 가격들의 지수체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필요한 제품의 원가계산에 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도매가격들사이의 지수체계는 먼저 생산물별로 지출요소들의 가격변동이 해당 생산물의 가격수준변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한 다음 그것을 생산물별로 서로 대비하여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가격지수체계를 세우고 그것을 생산물들의 원가계산에 리용하면 계산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가격들의 지수변동상태를 직접 알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리 예견하여야 할 생산물들의 예상가격수준결정에서 보다 근사성을 보장할 수 있다.

모든 일꾼들은 원가에 기초한 도매가격제정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도매가격을 경제발전속도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 옳바로 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실마리어 원가, 도매가격제정